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14(수) 11:00 <1. 15.(목) 조간> 배포 2026. 1. 14.(수)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 네덜란드 경제부와 「제4차 한-네 혁신공동위원회」 개최 -

- '16년부터 한-네간 41개 공동 R&D 과제에 총 442억원 지원 -

- 차세대 지능형 트랜시버 등 우리기업의 글로벌 독점 제품 개발 성과 달성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14일(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국은 '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 '16년부터 양국 산학연간 총 41개 국제공동 R&D 과제, 총 442억원 지원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쩨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였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동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530)
		담당자	사무관	지미란	(044-203-45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